

공격포인트 첫 30 고지…손흥민, 손흥민을 넘다

뉴캐슬전 전반 27분 선제골…동생 잃은 동료 안아준 세리머니 감동
시즌 18골 12도움 기록…유럽 무대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기록의 사나이로 우뚝 섰다.

2경기 연속골과 함께 자신의 역대 유럽 무대 한 시즌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30)를 동시에 달성했다.

손흥민은 16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치러진 뉴캐슬과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원정에서 전반 27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12일 아스널전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이었다.

토트넘은 후반 11분 동점골을 내줬지만, 후반 15분과 45분에 잇달아 터진 해리 케인의 연속골로 3-1 승리를 따냈다.

승점 55를 확보하며 7위에 랭크된 토트넘은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의 마지노선인 4위 레스터시티(승점 59)와 격차를 4로 줄였다.

더불어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본선행 티켓을 주는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59)와도 승점 4점차다.

다만 맨유와 레스터시티는 토트넘보다 1경기를 덜 치렀다. 유로파리그 2차 예선 출전권의 6위 올버햄프턴(승점 56)과는 승점 1차다.

4-2-3-1전술에 왼쪽 날개를 담당한 손흥민은 전반 27분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팀의 핵심 공격자원으로 책임을 다했다.

손흥민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지오반니 로셀소가 연결해준 볼을 잡아 수비수 두 명을 앞에 두고 정확한 오른발 슈트로 뉴캐슬 골대 왼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손흥민의 리그 11호 골이자 시즌 18호 골(정규리그 11골·UEFA 챔피언스리그 5골·FA컵 2골)이었다.

이번 득점으로도 손흥민은 이번 시즌 18골에 도움 12개(정규리그 10개·UEFA 챔피언스리그 2개)를 기록해 ‘공격포인트 30’ 고지를 넘었다.

/연합뉴스

손흥민 유럽 무대 주요 성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성적

11골 (10도움)	2019-2020 시즌 (진행 중)
12 (6)	2018-2019
12 (6)	2017-2018
14 (6)	2016-2017

유럽무대 골 기록

리그 53골 (29도움)	2015-2016 4 (1)
FA컵 12골 (7)	21 (7)
리그컵 3골 (2)	18 (11)
챔피언스 리그 17골 (7)	20 (9)
	18 (12)

EPL 현재 순위

우승 확정	1~4위	5위	6위
1위	2위	3위	4위
리버풀	맨시티	첼시	레스터
승점 93점	75점	63점	59점
			59점
			56점
			55점
			54점

이는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 나선 이후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17-2018시즌(18골 11도움)과 2018-2019시즌(20골 9도움)의 29개다.

더불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만 따져도 11골 10도움(공격포인트 21)으로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정규리그 최다 공격포인트 기록까지 작성했다.

기존 기록은 2016-2017시즌 20(14골 6도움)이었다.

이미 지난 13일 아스널을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단일 시즌 정규리그 ‘10-10 클럽’ 멤버에 가입한 손흥민은 ‘기록의 사나이’로 자신의 주가를 또 한 번 끌어올렸다.

손흥민은 득점 이후 오른쪽 풀백 세르주 오리에와 뜨거운 위로의 포옹을 나누는 따뜻한 모습도 연출했다.

오리에는 지난 13일 프랑스에 있던 동생 크리스토퍼 오리에가 거리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슬픔을 겪었고, 손흥민은 골 세리머니를 나누며 위로했다.

케인은 연속골로 개인 통산 200호·201호골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FA컵 16강서 ‘멈춤’

광주, 강원에 2-4…전남, 전북에 연장 끝 2-3 분패

광주FC와 전남드래곤즈의 FA컵 도전이 16강에서 멈췄다.

광주가 1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하나은행 FA컵 강원FC와의 4라운드 대결에서 2-4로 졌다.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를 만난 전남은 연장 혈투 끝에 2-3 분패를 기록했다.

광주는 3일 만에 전개된 강원과의 리턴매치에서도 패했다.

지난 12일 K리그1 정규리그 1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강원을 만나 1-4로 고개를 숙였다. 공교롭게도 FA컵에서 다시 만났지만 이번에도 수비가 아쉬웠다.

광주는 전반 23분과 24분 연달아 정석화와 이현석에게 골을 내준 뒤, 전반 44분 이영재에게 세 번째 실점을 했다.

전열을 기다들은 광주가 전반과 다른 후반전을 보내며 추격에 나섰다. 올 시즌 새로 광주에 등지를 뜬 김효기와 한희훈이 이적 후 첫 골을 신고하면서 골 세리머니를 했다.

후반 10분 김효기가 침묵을 깨는 골을 넣었고, 28분에는 한희훈이 추가골을 넣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한희훈의 골 뒤 3분 만에 4번째 실점이 기록됐다. 이영재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면서 광주는 앞선 정규리그에 이어 강원에게 두 경기 연속 4실점을 하며 8강 티켓을 내줬다.

전남은 전북과의 연장 혈투 속에 아쉽게 2-3으로

로 패했다.

전남은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가 2018년 9월 25일 정규리그 이후 659일 만에 전북과 ‘호남더비’를 벌였다.

8강을 위해 전남은 정예멤버로 전북전 라인업을 구성했다. 추정호, 이종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임찬율, 이호준, 황기우, 하승운으로 허리를 채웠다. 골키퍼 박준혁을 중심으로 올렉, 박찬용, 김주원, 이유현이 방어막을 구성했다.

선제골은 전북의 몫이었다. 이승기가 전반 16분 팽팽한 균형을 깨는 선제골을 넣었다.

이후 전남이 반격에 나섰다지만 부상 변수가 발생했다. 임찬율과 추정호가 연달아 부상으로 실려나갔다. 부상 약재에도 전남은 추가 실점 없이 전반을 마무리했다.

몇 차례 상대 골키퍼 송병근의 선방에 막혔던 전남의 공격이 경기 종료 직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이종호가 후반 44분 프리킥 상황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며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전남이 연장 전반 6분과 10분 손준호와 쿠니모토에게 연달아 골을 내줬다.

전남이 그냥 물러서지는 않았다. 연장 전반 12분 하승운의 골로 다시 전북을 1점 차로 압박했다. 전남은 추가골에 실패하면서 8강 티켓은 얻지 못했지만 전북을 상대로 만만치 않은 경기를 펼치며 명승부를 연출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경사났네” 토트넘의 손흥민이 15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6라운드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토트넘이 3-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광주, 부산 잡고 이번엔 연패 탈출할까

‘K리그1’ 내일 원정

펠리페 출장한 경기 패배 없어

윌리안도 징계 벗어나 출격 대기

‘K리그2’ 전남, 안방서 부천과 일전

광주FC가 부산을 연패 탈출 무대로 삼는다.

광주가 18일 오후 6시 구덕운동장에서 부산아이파크와 2020 하나원큐 K리그1 1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연패탈출’이 광주의 절박한 숙제가 됐다. 광주는 3승 1무 7패(승점 10)로 9위에 있지만, 11위 성남FC와 승점이 같다. 최하위에 있는 인천유나이티드(승점 3)와의 격차도 벌리지 못하는 등 걸음이 더디다.

광주는 이번 일정을 위해 지난 15일 강원FC와의 FA컵 16강전에서 주전들을 대거 제외하며 숨을 골랐다.

앞선 강원 원정에서 허벅지 통증으로 빠졌던 펠리페 등이 총력전을 위한 휴식과 정비 시간을 벌었다. 펠리페와 함께 부산에 강한 윌리안도 사후 징계에서 벗어나 출전을 기다리고 있다.

펠리페는 역대 부산전에서 5경기 4골 1도움을 올렸다. 또 펠리페가 출장한 부산전에서는 한 번도 패가 기록되지 않았다. 앞선 6라운드 맞대결에서도 득점에 성공하며 3-1 승리를 이끌었다. 윌리안도 부산전 3경기에 나와 2골을 기록했다.

배태광 김효기의 움직임도 반갑다. 김효기는 15일 강원과의 FA컵에서 후반 10분 팀의 첫 골을 넣었다. 김효기의 시즌 첫 골이기도 했다.

공격 옵션을 넓힌 광주에는 수비가 고민이다. 광주는 10라운드 대구전에 이어 11라운드 강원에서 연달아 4실점을 했다. FA컵까지 세 경기 연속 4실점이다.

부산은 최근 리그 2연승을 달리는 등 5경기 연속 무패(3승 2무) 중이다. 수원FC와의 FA컵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다.

이정협을 중심으로 호물로, 이동준, 김진규로 이어지는 공격라인을 막을 수 있을지가 광주 연패 탈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남드래곤즈는 18일 오후 6시 부천FC와 안방에서 수비 전쟁을 벌인다.

전남은 지난 7일 9라운드 안산전에서 4-0 대승을 거두며 2연패에서 벗어났다. 앞선 FA컵 3라운드 경남FC전까지 두 경기 연속 4득점에 성공하면서 뜨거운 화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10라운드 안양 원정에서는 골침묵 속에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남은 15일 FA컵 경기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난적’ 전북을 상대로 연장 승부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 2-3으로 패하기는 했지만 전남의 경쟁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경기였다.

전남은 올 시즌 경기당 평균 0.6골의 ‘싼물 수비’를 과시하고 있다. 부천 역시 경기당 평균 0.88로 전남에 이어 최저실점 중이다.



펠리페

지난 6월 28일 8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전정 복귀 후 첫 골을 기록했던 이종호가 전북과의 FA컵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쉬운 결원도 발생했다.

줄리안이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결과 2경기 출장 정지의 사후 징계를 받았다.

줄리안은 10라운드 안양과의 경기에서 전반 19분 상대 선수의 무릎을 스테드(축구화 밑창 징)로 가격했다. 당시 경고를 받았던 줄리안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영상분석 결과 퇴장 적용을 받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